

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성시화

도시 앤 톡
인물인터뷰 돌음교회

기획특집

한자로 풀어보는 가정회복의 방법
꿈꾸는 노인! 함께 일구는 행복한 노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혼했는데 교회에 가도 되나요?

기획연재

성목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춘천중앙감리교회의 첫 목회자 이덕수
성시화의 출발지점, 연구자

문화에 빠지다

맛기행 밥맛 좋은 성도가 되자!

영화이야기 광야의 40일

영화감상 김복동

책속의 책 하나님을 추구함

습관이 영성이다

성도는 우리 가족뿐입니다

건강 짧았던 봄이 지나 무더운 여름이 찾아옵니다.

소개합니다

춘천성시기도회

CCF(Chuncheon Church Fellowship)

249

APRIL 2023



창간199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2023년 그리스도의 계절

성 시
선 교 대 회

2023년 9월 3일(주일) ~ 9일(토)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CITY AND TALK ·

도시 & 토크

5월 25일(목). 오전 10:30. 주향교회

Contents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성시화

- 04 도시 앤 톡(City and Talk) | 편집부
- 06 인물인터뷰 | 돌움교회 | 정숙현 전도사

기획특집

- 07 한자로 풀어보는 가정회복의 방법 | 허근옥 권사
- 08 꿈꾸는 노인! 함께 일구는 행복한 노후! | 신덕진
- 09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 이성미 원장
- 10 이혼했는데 교회에 가도 되나요? | 편집부

기획연재

- 12 성목요일부터 부활절까지 | 최준혁 목사
- 15 춘천중앙감리교회의 첫 목회자 이덕수 전도사 | 김동정 장로
- 18 성시화의 출발지점, 연구자 | 조용호 박사

문화 | 영화 | 책 FOOD MOVIE BOOK

- 19 맛 기행 밥맛 좋은 성도가 되자! | 이관형 권사
- 20 영화이야기 광야의 40일 | 김춘배 화백
- 22 영화감상 | 김복동
- 23 책 소개 책속의 책 | 정숙현 전도사
- 24 건강 째랐던 봄이 지나 무더운 여름이 찾아옵니다. | 이시형 원장
- 25 소개합니다 | 춘천단체



춘천성시화운동후원하기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참여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대화의 한 마당 도시 앤 톡(City and Talk)

편집부

최근 고고학자들이 튀르키예(옛 터키) 일부 고대지역을 발굴하다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신석기시대에 이미 고도로 발달한 도시문명의 엄청난 흔적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설은 메소포타미아문명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튀르키예 남부 “차탈회위크(Çatalhöyük)”지역의 발굴로 역사의 시계를 훨씬 더 많이 돌려 도시문명의 형성은 최소한 지금부터 9,500년(BC7500년) 전으로 드러났다. 현 고대사의 내용을 바꿔야 할 지경이다.

성서에도 최초의 도시 이야기가 나온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성(city)이다. 가인의 후예들은 금방 고도의 농경문화와 목축문화를 형성하고,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의 토대를 쌓았다. 수금과 통소와 악기문화도 만들었다.

프랑스의 크리스천 문명비평가 자크엘룰(1912-1994)은 도시의 기원을 창세기 가인으로부터 찾았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부터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이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늦깎에 거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할 성을 건축했다. 자크 엘룰은 현대 모든 도시의 특징은 가인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도시는 철저하게 인간이 만든 곳이다. 바닥도 인간이 만든 아스팔트이고, 벽도 콘크리트이고, 천장도 인간이 만든 것이다. 도시사람들은 빌딩 숲을 이루고 있어서 하늘을 볼 시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현대인들에게 일종의 최면을 건다. ‘인간이 위대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인간이 만물의 척도요, 인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도시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지하게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웃음거리가 되기 쉽다. 이러한 현대의 도시문명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결별을 의미한다고 자크 엘룰은 분석한다.

그러면 현대의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가인적 성격의 현대 도시(city)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다. 비록 잘못된 물줄기로 인류문명사가 흐르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창1:2-28)하셨을 때 이미 인류의 사회화와 도시화를 생각하고 계

셨다. 다만 역사의 물줄기가 나쁜 물줄기로 흘렀을 뿐이다. 이제 이 물줄기를 바꾸자.

3월부터 시작되었던 「도시 앤 톡」(City and Talk)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자. (City and Talk)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주님 안에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대화의 한 마당”이다. 성시본부의 여러 임원들이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만든 대화의 장이다. 고민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시, 거룩한 도시, 행복한 도시 ‘로 만들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도시 앤 톡」(City and Talk)을 통해 우리 도시 안에서 논의를 시작한 “어린이 도시” 이슈로부터 시작해서, 종전 70년을 맞는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의 복음통일준비 이야기, 어떻게 하면 춘천이 직장 선교운동의 모델도시가 될 것인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문제를 춘천교계가 어떻게 공동 대처할 것인가? 또 대학은 “또 다른 미전도 종족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 물줄기를 바꿀 것인가? 등을 고민하고 토의하게 될 것이다. 형제자매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문의: 성시본부)



날마다 말씀으로 영혼을 북돋우는 “춘천돌움교회”

취재 정숙현 전도사
(성시신문 편집위원)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삼하 23:4)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눅 1:78~79)

** 반갑습니다. 춘천돌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요?

춘천돌움교회는 한 사람 이원평의 뜻이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세워졌습니다. 저는 감리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간 목회했지만 뜻한 바 있어 교단을 탈퇴한 뒤 합동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2016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파트 사역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2017년 3월 말 경남 통영의 한 교회 부목사 부임을 앞두고, 아이들 전학 준비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저를 멘토해 주시던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은 제 말을 듣고 계시다가 별안간 “이 목사님 통영으로 내려가지 말고 춘천에서 개척하세요. 통영 목사님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세요.”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제 생애에서 정말 희한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내려와 한 달여 남짓 바쁘게 준비한 끝에 2017년 5월 1일 춘천돌움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멘토이신 최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사비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시작된 교회였지만, 여려모로 준비가 부족했던 저는 부끄럽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에서 헤매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시국이 터져버렸고 이 과정에서 춘천돌움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됩니다.

** 앞으로 춘천돌움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기도제목을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 교회는 현재 십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이 앞날도 인도해 주실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뼈저리게 느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개척 교회 목회자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성도로서의 경건한 삶도 다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제가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경건에 힘쓰지 못했음에도 그동안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경건은 필수지만 최우선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고 그 안에 거하며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매일 말씀을 풍성히 먹으며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좋은 꿀을 먹이려고 합니다. 더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쉬고 있는 수요 신앙 강좌인 고전읽기를 다시 시작하여 성도들과 함께 토론하며 느꼈던 감동도 느끼고 싶습니다. 저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나며 지는 다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려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부족한 저와 춘천돌움교회를 위하여 잠깐씩이라도 기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평 목사

한자로 풀어 보는 가정 회복의 방법

허근옥 권사

(중등한문교사 14년 경력,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연구소 소장, 춘천나눔교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이념으로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며 한자 풀이로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福(복, 복)”과 “禍(재앙, 재앙내릴, 화)”자와 “富(부유할, 부)”의 한자 안에 담긴 뜻을 살펴보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가정이 화목하며 복을 받고 부유하게 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福 : 복, 복”자에 들어가 있는 한자와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示(보일, 시) …… 하나님께서(示자 부수 한자는 신의 능력과 관계된 한자들입니다.)

一(하나, 일) …… 첫 번째로

口(입, 구) …… 사람에게 주신 것은

田(밭, 전) …… 에덴동산(내가 속한 바운더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의 바운더리 가운데에는 십자가(十)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의 바운더리 중에 어떤 것을 내가 바꾸지 못하게 정해 주셨을까요? 부모님, 형제자매들, 성별, 키, DNA, 조국(대한민국), 살아가는 시대, 고향 등이 있습니다.

福이란 글자는 내가 태어날 때 정해진 것들이 복이라고 담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복이랍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복이라고 담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재앙, 화’ 또는 ‘재앙을 내리다 화(禍)’자를 살펴보겠습니다.

禍는 示(하나님)+ 咎(입 비뚤어질, 와 또는 입바뚤, 궤)가 합쳐진 글자입니다.禍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바운더리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보고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 빠져 입을 뻘뻘뻘뻘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책임전가나 하는 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라고 담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부유할, 부(富)”를 살펴보겠습니다.

富는 宀(집, 면)과 福자에서 示를 뺀 나머지 부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한자 ‘부유할 富’자를 살펴보면 부유하게 산다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지켜나가고,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부유한 것이라고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禍福(화복)이라고 말하지 福禍(복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 조상들의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를 없애면 복이 오기에 화복이란 단어로 복과 저주를 나타내는 단어를 쓴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고 자라나 썸 결의 무성한 가지가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담장을 넘어가는 것이 부유한 자의 삶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5~6

꿈꾸는 노인! 함께 일구는 행복한 노후!

신덕진(사암교회, 사암노인복지센터장)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바란다. 오래 살고 싶은 인류의 간절한 바람으로 바야흐로 100세 인생 시대에 살고 있다. 의료기술 등의 발전으로 우리의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며 생애주기에 서 노년기는 더욱더 늘어나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곧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노인 중 절반이 빈곤층이며 95% 이상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유병률은 10% 이상이다. 노인 독거 가구와 노인 고독사 역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체적,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후는 그야말로 불안과 두려움의 시기가 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까?

꿈꾸는 노인!

성경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요엘 2:28)”라고 선포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살아왔다. 노인들도 꿈을 가져야 한다. 젊은이의 꿈이 남을 의식하기도 하고 비교도 하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출세와 명예와 부를 위한 목표지향적이라면, 노년은 삶의 경험과 연륜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인식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며 남은 생을 소명감과 책임감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목적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은 단순하고 소박하며 겸손히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꿈꿀 수 있으며,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꿈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꿈을 꿀 수 있으며, 삶의 흔적들을 아름답게 남기려는 꿈을 가질 수도 있고, 진정한 삶과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는 꿈을 꿀 수도 있으며 죽음 이후의 꿈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취약해지고 취약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꿈꾸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노인은 행복하다.

함께 일구는 행복한 노후!

행복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 가족 및 사회관계망, 사회참여 활동, 종교, 경제상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은 모든 요인을 고루 갖추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 노년기에 부딪히는 질병, 죽음, 빈곤, 차별, 고립감 등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개인이 해결하긴 어렵지만 함께하면 서로 힘을 얻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삶의 가치와 신앙적으로 맞는 사람들끼리 생활공동체를 꾸려 나갈 수 있으며,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배움과 돌봄의 마을공동체를 가꿀 수 있고, 당면한 상황과 여건을 해결해나갈 다양한 나눔과 협력의 공동체를 일구어 나갈 수 있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으로 끝나든지 포기할 수 있지만 함께 일구어가는 꿈은 현실이 되고 더욱 행복한 노후의 삶이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성미 원장 (숲속자이 어린이집)

인구절벽시대! 심각하고 급격한 저 출산으로 유아교육기관은 문을 닫아가고 어린이집 원장들과 보육교사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3년 전 순복음춘천교회와 함께하는 (사)사랑나눔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며 하나님께서는 다음세대를 위하여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까요?”운영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유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바라보게 하였고 10년간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했던 강점을 사용하셨습니다. “소통맘 스쿨”이라는 소그룹 부모교육을 통해 학부모들과 깊은 라포형성을 하게 하였고 저는 학부모들의 안내자, 위로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그룹 부모교육의 자리는 내 삶의 간증 자리였고 은근한 하나님 자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3년차에 접어들며 어린이집을 수료하고 졸업한 가정들이 생겨나고 저는 이제 학부모와 원장과의 관계를 떠난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교사들을 보내 주신 것도, 거부감 없이 월 1회 예배 특송을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못나갔던 교직원들은 특송을 하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소그룹 안에서 나누다가 동료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이집은 그 향기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영유아들과 직접 예배할 수 없는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시대. 공교육 체제 안에서 종교교육을 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 영유아들은 부모가 크리스천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씨를 뿌리고, 각 가정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며, 부모교육을 통해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라면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각 가정에 역사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기

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체험하면서 살아온 날들,, 이곳에서의 사역이 마쳐지는 그날까지 힘을 잃지 않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혼했는데 교회에 가도 되나요?

편집부

가정의 달인 5월은 교회에 정말 가기 싫다.
모든 설교 내용이 가정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7년 전 이혼 후 한 자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50대 형제다.
누구나 그렇듯이 결혼에 관한 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가정을 이루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 결혼 20년 차에 처는 부족함에 재물을 쫓았고 나는 외로움에 사람을 쫓으며 서로를 섬기라는 우상에 빠져 견원지간처럼 사이가 나뉘었다. 그러니 당연히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출석교회에선 권사 부부라 행세했지만 사실 걸모양만 부부였지 그냥 동거인이었다. 특히 무엇보다 은혜받아야 할 주일에 많이 다뤄서 오히려 받은 복을 전부 토해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이란 담벼락에 구멍이 하나둘씩 생겼고, 결국엔 담벼락이 무너져 이혼가정이라는 바람 부는 황량한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에서 위로와 기쁨과 은혜를 받으려 교회에 갔지만... 내 노파심인지는 모르지만 내 처지를 비난하며 정죄하는 듯한 성도들의 수군거림에 기쁨과 은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특히 곁에 있는 아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주여! 주여! 부르며 흐느끼며 눈물도 많이 흘렸고, 이럴 바엔 차라리 이혼이 아닌 사별이었으면 하는 나쁜 생각까지 가질 때도 있었다. 그래서일까? 나와 내 자식에게 관심 없는 큰 교회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전부 내 노파심이었다.

내 사정을 잘 아시는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해 어머니 같고 큰누님 같은 권사님들이 이혼에 관해 우스운 말로 아내가 최고의 노후대책인데 노후대책을 포기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부자에게 많은 관심과 정성을 보여주셨다.

매 주일 교회 점심 식단의 반찬을 정성껏 따로 싸주시고 김장철만 되면 우리 집 김치냉장고가 꽉 차고 넘칠 정도로 주셔서 오히려 내 주변에 나눠주었고 교회 부부동반 모임엔 내가 남선교회 회원임에도 여성교회의 식탁 자리로 불러 이것저것 잘 챙겨주신다.(나보고 이참에 여성교회로 오라 하신다. 진지하게 생각 중 ^^)

이혼 후 주변 분들로부터 새 출발 하라며 돌싱이라 불리는 내 처지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소개받았었다. 하지만 종교가 다르거나, 같아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첫 번째 짓거리라 생각되는 교만한 마음들을 가진,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과 존중과 예의가 없는 분들을 만나서 결국엔 내 아버지인 하나님 눈치만 보며 스치듯 만나서 헤어졌다.

아쉽게도 성도라 불리는 돌싱들 중에는 어리석게 재혼 상대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좋고 세상적으로 인물도 좋고, 좋은 직장에 건강할 잘난 형제와 예쁜 자매를 만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교회건 세상이건 그런 사람은 드문 게 사실이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보물을 쌓고 또한 천국에도 보물을 쌓는다는 말인데... 그게 가능할까?

마치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과 정략결혼을 한 솔로몬 때문에 이집트의 신과 하나님이 동거하는 말도 안 되는 일과 연관된다.

또한, 이런 와중에 이혼이란 부끄러움도 모른 채 혼자 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자랑인 양 자유로운 영혼이라며 떠돌고 다니는 이혼전도사들이 있으니 이들은 우리 같은 교인들에겐 영혼의 방해꾼이며 세상 사람들에게겐 되먹지 못한 가정파괴범이다.

가정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평안과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마음의 천국인 반면 분쟁이 많은 곳이다. 가정이건 교회이건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탄의 계략으로 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지옥이 따로 없다. 이혼한 가정에서 주일성수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것을 지켜보면 불쌍하고 안타깝다. 특히 자녀는 무슨 죄가 있어 열심히 다니던 교회에 부모

때문에 덩달아 교회를 못 가게 되니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런 점에선 교회의 책임도 있다.

나 역시 이혼한 주제에 무슨 염치로 이곳에 글을 올리나 하겠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내 이웃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상처받은 가정이 있다면 교회 식구분들이 위로해주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이혼 사유에 대해 누가 더 잘못했는지 동네 재판하며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에 조금 뿌리지 말고, ‘밥 한번 먹자’라는 공수표도 날리지 말고, 특히 ‘기도드릴게요’라는 진정성 없는 말도 삼가며 세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너만의 잘못은 아냐”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욥기서의 주인공은 욥기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잘 헤아려가며 잘 살아가려고 한다. 그래야 성도다.

끝으로 마지막 사랑을 꿈꾸는 성도들에게

근면 성실하며 순종적인 감사 신앙을 실천한 뜻과 친절하고 따뜻한 리더십을 가진 경건한 믿음의 보아스가 서로 만난 것처럼 여러분 인생극장의 감독인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마지막 사랑을 만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다양성과 풍성함과 소중함을 찾아가며 항상 은혜의 큰 기쁨이 넘치는 가정에서 아름다운 쉼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목요일부터 부활절까지 : 기독교의 절기를 축제로 지키기 위한 독일교회의 전통

최준혁 목사(가까운 루터교회)

부활절 계란 나누기, 계란 찾기, 부활절 연합예배 등이 기독교의 부활절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풍성하고 전통적인 부활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독일의 기독교적 전통과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성주간에는 성목요일과 성금요일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분리될 수 없다는 확신에 근거합니다. 이 중에 어떤 절기가 제일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의 공생애로 이어지며 고난과 죽음은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부활의 승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순절 안에 속해 있는 성주간의 절기들과 부활절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우리들을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따르도록 하며 바른 신앙의 길로 안내합니다.

성만찬의 성목요일

사순절기의 마지막 주간이며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성주간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신 성목요일로 시작합니다. ‘성만찬’ 그리고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 때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여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성례전’ 또는 ‘성사’입니다. 즉,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신 마지막 식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에서는 매주 성만찬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만 성만찬이 예배 때 실행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녁인 목요일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무덤에서 빛으로 성금요일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하는 날인 성금요일은 고요함 가운데 보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기 위해 금식과 침묵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중세시대 이날에는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금기였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춤도 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독일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내면화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전통적으로 이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인 오후 3시부터 부활절 아침 6시 부활하신 시간까지 모든 교회 탑의 종소리는 나지 않고 조용히 지킵니다. 이 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시끄러운 소리와 거친 일들을 중단함으로써 가정과 공공장소

에서 안식을 통해 부활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어둠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장식하지 않으며 검은색 배너로 장식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예배와 기도회도 있지만 성주간 절정의 시간에는 루터교회의 교회 음악가이자 오르가니스트인 요한 세바스티안(Johann Sebastian Bach 1685-1728)의 마태, 요한 수난곡 오라토리오(Oratorio)가 상연됩니다. 오라토리오란 성서를 주제로 한 대규모의 서사적 악곡입니다. 종교음악의 한 형식으로 태어난 오라토리오의 모습이 오페라와 매우 비슷합니다. 기도회와 예배에 집중하는 가톨릭교회와는 달리 개신교회 성도들은 바흐의 음악적 유산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부활절 빛의 예배 레겐스부르크 십자가교회)

성주간 토요일

성금요일이 지난 다음에 성주간 토요일이 옵니다. 바쁘고 화려한 부활절 준비는 교회의 부활절 준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저녁에는 부활절이 서서히 다가오며 분위기는 점점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독일의 북부와 중부 교회에서는 성주간 토요일 밤부터 부활절 일요일까지 부활절 모닥불을 밝히기도 합니다. 시골 지역은 타오르는 불을 겨루는 대회도 있습니다. 엄숙한 이 행사는 사순절이 끝나 어두워지고 빈 무덤과 같은 교회에 빛이 들어옴으로써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끝났음을 상징합니다.

성주간 세 번째 부분은 이른 아침에 거행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밤에 일어나셨고 여인들은 이른 아침에 빈 무덤을 찾았습니다. 독일의 민간 전통에서는 부활절 아침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부활절 예배

슬픔과 침묵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아침 일찍 모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여자들은 “해가 뜨는 아주 이른 시간에” 무덤에 왔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서 부활절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한밤중에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독일의 많은 사람이 부활절 새벽의 특별한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새벽예배가 없는 독일에서는 거의 유일한 새벽예배가 부활절 아침예배입니다. 부활절 새벽예배는 보통 오전 6시경에 시작됩니다. 해가 뜨지 않아서 밖은 아직 어두컴컴하고 예배실은 불을 밝히지 않아서 윤곽만 보입니다. 시작은 엄숙합니다. 교회 마당에서 햇불을 밝히고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다가 “그리스도는 빛이 십니다”라고 세 번 말합니다. 촛불을 들고 빈 무덤에 들어가듯이 찬양을 부르며 어두운 교회로 입장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는 세례받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와 장소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세례를 통하여 새 생명 얻었음을 확신하고 이를 증거합니다. 부활절 예배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중심 주제를 이룹니다. 현재 독일 개신교회 목사와 성도들은 부활절 인사를 예배 중에 나눕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인사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화답을 합니다. “할렐루야”(히브리어 :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일 년 중 다른 어떤 날보다 부활절에 더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친교의 표시로 부활절 예배에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은 부활절 새벽예배를 마치고 계란과 버터와 설탕이 들어간 달콤한 빵으로 아침식사를 나눕니다. 매주 공동식사를 하는 한국교회와는 달리 독일교회는 공동식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절 아침만은 다릅니다. 알록달록한 계란은 새로 시작하는 생명과 무한한 생명력의 상징일 뿐 아니라 빈 무덤을 의미합니다.

부활절 월요일은 독일의 국가 공휴일입니다. 이날 많은 교회들은 야외예배를 준비합니다. 야외에서 그리고 산과 들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며 산책과 외출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을 온 몸으로 느낍니다.



(부활절 장식 노이파교회)

전 세계에는 많은 부활절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활절 전통을 통해 한국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활절 예배와 행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춘천중앙감리교회의 첫 목회자 이덕수 전도사

김동정 장로(춘천신성감리교회, 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125년여 전인, 1897년 12월 8일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의 강원도 선교 결정으로 1898년 4월 나봉식, 정동렬이 춘천지역 선교를 시작하여 퇴송골(현 퇴계동 남춘천파출소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이 역사적 사건이 바로 춘천중앙감리교회의 첫 발걸음이 되었다. 1901년 4월에는 춘천 퇴송골에 첫 속회가 조직되었고 훗날 이덕수(李德秀, 1958~1910) 전도사의 활동으로 1907년 춘천구역의 교세는 무려 48개 교회에 입교인 202명, 학습인 1,814명으로 보고될 정도였다.



이렇게 춘천구역이 괄목할만한 부흥을 한 데는 이덕수 전도사의 공이었다. 그는 어떤 인물이었으며 어떻게 춘천구역을 부흥시켰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불량배 이덕수 고랑포교회 속장되다

춘천중앙감리교회의 첫 목회자가 된 이덕수 전도사는 경기도 장단 고랑포 마을에서 우연한 기회에 매서인의 전도를 받았다. ‘구제불능’으로 여겨 마을 사람들도 접근하기를 꺼려했던 그가 매서인이 전해 준 전도 책자와 쪽복음을 읽으며 변하기 시작했다. 사기와 폭력을 일삼던 이덕수는 지계를 지고 나가 정직하게 돈을 벌기 시작했다. 불화가 끊이지 않았던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고 더욱이 가장의 믿음이 가족의 개종으로 이어져 이덕수의 온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다. 이덕수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덕수는 지계를 지고 장마다 다니며 새우젓을 팔면서 쪽복음과 전도책자를 팔았다. 아직 선교사로부터 정식 매서인으로 임명을 받기도 전이었다. 장사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기뻐하였기에 새우젓 장사가 오히려 부업이 되었다. 그의 전도활동구역은 고랑포를 넘어 경기도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얼마 후 그는 고랑포교회 속장이 되었다.

무스와 함께 춘천에 등지를 틀다

1904년 9월 춘천구역이 조직되고 그 초대 담임자가 된 무스는 춘천에 정착해서 전도할 토착인 목회를 구하다가 임진강변 고랑포교회 속장 이덕수를 만났다. 이덕수는 무스로부터 “춘천에 함께 가서

전도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1905년 가족을 이끌고 춘천향교 뒤편 아동리 언덕에 4칸짜리 초가집을 마련한 후 본격적인 전도 활동에 나섰다. 그러면서 퇴송골에서 모이던 집회도 이덕수의 아동리 사택으로 옮겼다. 이덕수는 춘천으로 옮기면서 평신도로서 설교 권한이 주어지는 ‘권사’(exhorter)가 되었다. 춘천구역(교회)의 명목상 담임은 무스였지만 실질적인 목회는 이덕수 몫이었다. 춘천 사람들에게 이덕수는 ‘지계꾼 전도인’으로 유명했다. 그는 장날이면 지계를 지고 장터에 나가 전도하였다. 먼 곳에서 온 가난하거나 노약한 사람들의 짐은 돈을 받지 않고 짐까지 저다 주며 전도하였다.

당시 선교사가 타고 온 자전거는 춘천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었다. 이덕수는 서양 사람과 자전거를 보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기를 보시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고 나서 무거운 짐과 달콤한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갔다. 무거운 짐을 지게에 지고 서서 듣는 사람들도 많았으니, 그의 외침은 듣는 이들에게 충분히 이해되었으리라.

그 결과 안식년 휴가를 떠난 무스 대신 춘천구역을 담임했던 콜리어(C. T. Collyer)는 1907년 연회에서 춘천선교에 대하여 “이 지역에 75개 교회가 있다. 북으로 샘밭, 남으로 마산까지 돌아보려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120마일(500리)은 족히 걸어야 한다. 또한 서쪽으로 간천, 동쪽으로 태화까지 동서로 횡단하려면 135마일(550리)이 걸린다.”고 보고하였다. 선교사들이야 말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만 이덕수는 지계에 등짐을 지고 걸어서 다녔다. 이런 이덕수의 전도 결과를 바탕으로 1908년 연회에서 춘천구역은 지방회(district)로 승격했다.

그 후 1908년 10월 남감리회 춘천 선교부가 개설되어 복음 전도에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이때 무스(J. R. Moose) 선교사가 춘천에 와서 춘천시 조양동 48칸 양옥을 구입하고 예배 장소를 옮기는 한편, 교회 확장 등 지방 조직을 시작하였다.

본처 전도사로 직첩 받은 이덕수

춘천 선교부가 1908년 개설된 후 불과 1년 사이에 예배당을 확장하고, 병원과 학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토착 전도인, 특히 춘천에 먼저 들어와 선교 기반을 조성한 이덕수의 공이 컸다. 이 점은 무스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사실이기도 했다. 그는 남감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목사 후보생이었다. 이런 그에게 1909년 9월 3일 남감리회 선교연회에서는 그에게 정식으로 ‘본처 전도사’(local preacher) 직첩을 주었다. 이덕수는 6명밖에 되지 않는 남감리회 토착 전도사 중 한 명이 되었다. 아직 한국인 목사가 나오지 않았을 때이다.

이덕수가 전도사 직첩을 받은 1909년 9월 연회에서 춘천지방이 처음으로 두 구역으로 나뉘어 춘천·양구 구역으로 분할되었는데, 이덕수는 무스와 함께 춘천구역에 파송되었다. 구역 담임은 무

스였지만 실질적인 목회는 이덕수가 담당했다. 이로써 그는 춘천교회에 파송된 첫 한국인 목회자가 되었다. 이덕수가 정식 전도사로 부임함에 따라 무스는 대판리 춘천교회를 중심으로 한 춘천구역뿐 아니라 양구구역까지 그에게 맡겼다.

이덕수의 목회구역은 춘천 시내가 아니었다. 춘천지방회 구역으로 확정된 강원도와 경기도 6개 군(춘천·홍천·화천·인제·양구·가평)이 그의 오랜 목회구역이었다. 그는 교통도 불편하고, 환경도 좋지 않은 강원도 산간벽지를 돌면서 몸을 사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결국 겹친 과로로 이덕수는 건강을 잃었고 결핵에 감염되어 1910년 4월, 무스 목사가 지방 순회를 나간 사이 아동리 사택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때 그의 나이 42세였다.

연회원들의 헌금으로 이덕수가 춘천에 처음 들어와 자리 잡았던 아동리, 춘천 선교부 가까운 언덕에 마련된 그의 무덤에 묘비가 건립되었는데(현재는 교회 뒤뜰에 소재) 묘비에는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 “주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시 23:1)는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다.

이덕수 전도사는 ‘땅 끝’을 찾아 춘천에 와서 양을 위해 희생하는 ‘선한 목자’로 살다가 춘천 땅에 자기 목숨을 버린 ‘한 알의 밀알’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남감리교회 선교 역사에 춘천선교의 개척자로, 춘천교회의 첫 번째 ‘순직’ 목회자로, 한국 남감리회 토착 목회자 중 첫 번째 희생자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이덕수 전도사 묘비에 새겨진 유언(좌), “주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시편 23편 1절)

성시화의 출발지점, 연구자(Researcher)

조용호 박사(춘천성시화연구소장)

너무 많은 정보가 차고 넘친다.

스마트폰에 몇 가지 단어만 쳐도 어마한 양의 글, 동영상이 쏟아진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후 만들어진 모든 자료는 이제 디지털화되어 우리가 손가락으로 쳐주기만을 대기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Mont Perlin 모임)를 찾아보니 첫 모임부터 뉴딜정책 논의, 학자들 논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눈앞에 펼쳐진다. 이 빅데이터가 로봇에 들어가면 인공지능(AI)이 되고, 자동차에 탑재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며, 도시기능과 접목하면 smart city가 된다.

그런데 그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과거의 정보는 넘쳐나는데 새로운 정보는 미약하다. IT사업자들은 기계가 스스로 배워 정보를 재생산한다는 의미로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을 말하지만, 당분간은 이상일 뿐 기존 지식과 대비해 볼 때 새로운 분야에는 바보 같다. 확연한 불균형이 느껴진다.

둘째, 편중되어 전달된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처럼, 무심코 지나면 내 주변으로 날아드는 정보는 알고리즘을 타고 편중된 정보가 눈앞에 놓인다. 성경책만 읽다가 성령의 임재를 잇는 식이랄까. 요즘 사회 곳곳에서 펼쳐지는 분노에 찬 큰 목소리에서 정보의 편견을 본다.

셋째, 나열할 뿐이지 연결되지 않는다. 자랑하듯 외치는 소리를 보여주지 서로 소통하며 검증하지 않는다. 어제 한 말이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달라도 바닷가 모래알처럼 널린 주장 중 하나일 뿐이다. 어차피 선택은 당신의 몫이니. 요즘 세상은 이렇다.

연구자는 새로운 분야의 첫 장을 여는 사람이다. 새로운 주장을 하기 전에 균형적인 시각으로 그 주장이 바른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독교연구자는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바른 주장인지 돌아보는 사람이다. 냉정과 온정이 함께하는 시간. 이 냉철하면서도 따스한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거칠고 낮은 “주장”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빛과 소금이 된다. 성시운동은 새로운 길을 여는 운동이다. 그 첫 페이지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기독교연구자의 몫이다. 춘천에 이 모임이 시작되기를 주님께 기도한다.

밥맛 좋은 성도가 되자!

이관형 권사(춘천 한길교회)

필자는 직장, 사회생활 관계로 1년 365일중 200일 이상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할 때가 많다. 하지만 식사 자리라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닌 불편할 때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어릴 적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식사 도중 코를 심하게 자주 풀거나, 몸을 여기저기 긁적긁적 긁거나, 침을 튀길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거나, 화장실을 가는데 옆 테이블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말하는가 하면 식당 종업원들에게 갑질하는 사람 등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다. 그중에 최악인 경우는 상차림 음식이 전부 나오기도 전에 반찬을 먹지도 않으면서 젓가락으로 뒤적이다가 내려놓거나,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 물김치 등을 수저도 아닌 입으로 별걱 마시고 내려놓으면 그날은 모든 반찬을 포기하고 밥만 먹고 싶은 심정이다. 이같이 밥맛 떨어지는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정말이지 불편함을 넘어 고통이다.

그래서 필자는 내가 을이 아닌 갑인 이상 빈말이라도 이런 사람들에게겐 ‘다음에 밥 한끼 먹자’라는 말을 절대 안 한다. 공용음식을 두고 우리민족 특유의 정을 나누는 상차림이라 하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다. 유교를 중요시한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가정에서는 물론 잔칫날에 손님들도 독상을 하나씩 받아서 먹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용음식을 차려 먹는 풍습이 생긴 것이다. 그러기에 공용음식을 엄격히 말하면 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침(병균)을 나누는 것이니 상견례 등 어려운 사람과 처음 만나는 식사 장소가 젓가락이 오고 가는 한정식이 아닌 독상 개념의 양식 혹은 일식을 먹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예배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은 곧 예배가 밥이란 뜻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상을 여럿이 함께 맛있게 먹는 시간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밥 먹는 시간에 밥맛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종종 있을 것이다. 사슴이 시냇가를 그리워하듯이 주일 예배시간을 기다려야만 함에도, 이 밥맛없는 사람들 때문에 주일에 교회 가서 반가운 양 인사를 나눠도 속마음은 불편할 때가 있다.

특히 제일 밥맛없는 사람은

“내 나이가 몇인지 알아?” “내 직분(직위)이 뭔지 알아?” “내 재산이 얼마나 알아?” 하며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자기 유익을 창출하려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이 밥맛 떨어지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래에 모두 피붙이 같은 가족공동체니 밥맛 좋은 사람으로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맛있는 밥 한끼도 꾸준히 대접해주자 그러다 보면 밥맛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럼, 교회 내에서 밥맛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사랑과 칭찬과 감사가 충만한 겸손한 사람으로 밥 한끼를 함께 먹더라도 기분 좋게 소통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밥맛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들어야 한다.

광야의 40일

김춘배 화백(성시신문 편집위원)



올해도 맞이하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그 믿음의 깊은 고통을 헤아리고 분별하고 또 분발해야 할 때이다. 위대한 공생애를 앞두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는 그 40일간의 내밀한 고뇌와 아픔을 온전히 가늠할 수나 있을까...

우선은 광야라는 지형적 구조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사나흘도 아니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시험이라는 것을 견디고 버티는 것에 우리의 상상이 얼마나 닿을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돌을 빵(떡)으로 만드는 것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리고 사탄에게 경배함으로써 세상을 소유하는 것이다. 필자가 감히 이를 묵상하며 해석해 보건대

우선, 이는 인간의 본성 3단계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첫째,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의 필요와 욕구의 문제이므로 이를 완전히 충족시키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능력을 행하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의 두 번째가 되는 것이며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권력의 욕구로 발전하게 되어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깨우치며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닌가 한다. 삼십여 년 전 성경 공부하면서 묵상 중에 나름 살짝 생각해 보았다.

부활주일에 맞는 제대로 된 영화는 이미 여러 편 소개가 되었고, 예수님의 40일간 광야 시험을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가 거의 없는 터에 유튜브나 OTT에서 <광야 40일>이라는 제목의 두어 편의 작품이 눈에 띄었다.

유명한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시리즈에 오비완 케노비역으로 출연하고 수많은 영화에 그 이

름을 알린 이완 맥그리거의 얼굴을 포스터 중심에 내세운 〈Last days in the desert〉가 ‘광야 40일’이라는 번역 제목으로 나왔다. 로드리고 가르시아라는 콜롬비아 감독이 만든 이 영화를 검색하다가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이름도 아주 생소한 제시 로우 감독의 〈광야의 40일: 시험 40 nights〉이다.

결국, 이 두 영화를 비교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미장센이나 감각 영화예술의 관점으로서는 전자가 좋다. 그러나 역사적인 문제작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동일 제목 작품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을 ‘감히’ 옮긴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와 같은 굉장히 난해하고 도발적이며 해괴하기까지 한 설정이 상당한 분량으로 나와 곤혹스럽다. 일체의 조명이나 디지털 색 보정 없이 순도 백 퍼센트의 자연광 아래서 촬영하여 놀라운 시각적 체험을 안겨 주면서 예수님의 인간적 번뇌를 그리려 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당연히 배척할 만한 내용으로 분별을 요구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무명의 배우들이 나오고 영화적 기술과 감각이 조금 떨어지지만, 오히려 자연스럽고 따뜻한 사랑의 예수를 그려서 영적 감동이 한결 더 낫지 않나 싶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탄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설정이 눈길을 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는 과정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동안의 제자들 모습도 볼 수 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목자라는 것을 온유하게 드러내고 간증하고 있다.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놀랍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 죄악을 사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감상하면 좋겠다.



김복동

Salvation 2013-2
245.7×112cm
oil on canvas & wood



여인을 포함하여 모두가 그리스도가 하는 말에 귀를 세우고 있다. 맨 오른쪽의 남자는 십자가에 달린 상황을 표현하듯 양팔을 벌리고 있다. 카라바조(Caravaggio 1571~1610)는 명암을 사실적이면서도 극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작가이다. 테네브리즘은 빛과 어둠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시각적으로 주목할 수 있게 극적인 요소를 더해주는 효과로, 이 그림에서는 극사실적 묘사를 통한 풍부한 명암으로 그 신성성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그림에서 사용된 정물들은 각각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담쟁이 넝쿨은 영생을, 청포도는 부활을, 검은 포도는 죽음을, 복숭아는 원죄를, 그리고 과일바구니는 교회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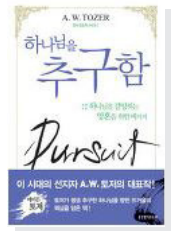


책속의 책

정숙현 전도사(안디옥교회)

하나님을 추구함 A.W.TOZER 지음/ 이명희 옮김/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갈망의 불이 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뼈에 사무치는 듯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갈망 받기를 갈망하시고, 그분을 원하기를 더욱 원하시는 분이다.
아마도 이 책을 잡고, 이 책 속에 빠져든다면
최고의 보화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모든 삶의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제임스 K.A. 스미스 지음/ 박세혁 옮김/ 비아토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제임스 스미스는 평소 우리의 갈망과 욕망이 마음의 지성소가 되어 예배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말하며,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만나고, 하고 있는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 습관처럼 배인 일상이 나의 영성은 아닌지를 묻는다. 그리고 그것들을 점검하고 예배라는 습관을 통해 하나님을 욕망하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찬찬히 나를 살피면서 읽는다면 뜻밖의 나를 발견하며 무릎을 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할 필요 없이 몸에 자연히 습득된 존재가 되어야 하며, 기독교는 예배를 통해 이것을 가능케 한다.



성도는 우리 가족뿐입니다 김민철 지음/쥬이북스

이천 시골, 오래된 상가 지하에서 10년이 넘도록 성도가 가족뿐인 교회의 목사, 부모님이 농사지으신 농산물을 판매하는 민철 상회의 무보수 대표자, 이런저런 알바로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 그의 직함은 여러 가지이다.
녹록지 않은 환경임에도 투정 한마디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에 묵묵히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없더라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다며 그 길을 걷고 있다.
목사이지만 종교적이지 않고, 목사이지만 성경을 지루하게 풀어놓지 않고, 그렇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담담하게 말하기에 읽다 보면 마음이 애잔하면서도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다.



짧았던 봄이 지나 무더운 여름이 찾아옵니다.

이시형 원장(이시형 한의원)

여름의 보양식하면 삼계탕이 떠오르실 겁니다. 예전에는 보신탕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애완건을 반려견이라 하여 보신탕 먹는 분들이 제 주위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더운 날 굳이 뜨거운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여름 무더위로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 인체는 열을 식히기 위해 피부 쪽으로 열기가 몰리면서 땀을 내서 체온을 내려줍니다. 피부 쪽으로 열기가 몰리기 때문에 인체의 내부는 따뜻한 기운이 부족해 서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내부의 열기를 올리기 위해 보양식품을 먹습니다. 덥다고 해서 찬 음식이나 음료 등을 먹게 되면 더욱 속이 냉해져서 설사 복통 소화불량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의보감에는 더위가 기를 잘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땀으로 체액이 빠지면서 기가 손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계탕에 인삼이 들어가 몸의 기를 보하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 여름 병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계곡이나 서늘한 집에 있다가 추위에 상해 오는 것입니다. 이는 요즘 냉방병으로 볼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 더운 날 야외에서 일을 하다가 더위에 상해서 옵니다. 조선시대에는 농경사회라 주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더위에 상한 것이죠.

첫 번째, 추위에 상한 경우에는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 근무 시 특히 보온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등이 시릴 경우에는 조끼 등을 입고 발이 저리거나 무릎이 시릴 경우에는 담요나 양말을 신고 있어야 하며 따뜻한 차를 수시로 마시고 퇴근 후에는 걷기 등으로 약간 땀을 내어 피부에 있는 한기를 발산시켜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야외에서 일하다가 더위에 상한 경우에는 미리 물이나 음료 등을 자주 섭취하여 체액 손실로 인한 탈수와 발열을 예방해야 하고 수시로 서늘한 곳에서 몸을 식혀 주어야 합니다.

더운 날씨이므로 음주로 인해라도 쉽게 체내의 열을 조장할 수 있으니 과음하지 마셔야 합니다. 평소 속이 찬 분들은 냉수, 아이스크림 등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갈증이 많이 날 때는 오미자차를 시원하게 하여 하루 한두 잔씩 마시는 것도 더위를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개합니다

춘천성시기도회



춘천성시기도회는 순수 친교모임으로 출발하였다. 지난 2019년, 그동안 춘천의 여러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던 교계 중진목사들이 순수 교제를 위해 수시로 모임을 가졌다. 춘천기독교 연합회장을 역임한 피종호 목사(춘천나눔교회), 차덕수 목사(강원침례교회)와 김기만 목사(현 춘천기독교 연합회장, 옥산포교회), 염명동 목사(사랑감리교회, 감리사 역임), 정재호 목사(성시운동본부 사무총장, 늘사랑교회)등이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다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강원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합류로 본격적인 “성시화를 위한 기도모임”으로 발전한다. 2022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금요철야기도회를 공유하였다. 하반기부터는 모임의 온전한 취지를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도모임”으로 규정하고, 매주 수요일 아침(7시)마다 정회원 교회를 순회하며 기도하고 식탁교제를 나누고 있다.

올해부터는 더욱 문호를 넓게 개방하여 목회자, 평신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성시화의 꿈을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용호 장로(춘천성시화운동연구소 소장, 갈릴리교회), 김훈 목사(성시본부 사무총장), 최상도 목사(사암교회), 유영호 목사(하늘뜻교회) 등이 활동 중이다.

CCF(Chuncheon Church Fellowship)

처음 시작은 chuncheon christian forum에서 출발했다. 당시에는 강대와 한림대 크리스찬 교수들이 참여해서 시작했고, 후에 목회자 중심의 모임이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CCF 연합으로 인도에 선교활동을 해 왔는데, 그 동안 세워진 7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비하르신학교가 개강하여 CCF 목사들이 한 달에 한 명씩 들어가 강의를 진행했다. 현재 네 분이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 4월에는 9일부터 12일까지 CCF연합부흥회를 가질 예정이다. 강사는 김광년 목사(신내교회)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시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홍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순화 고정희 광복연 광해옥 광 환 국주영 권경애 권양희 권여림 권영자 권용인 권혁자 권혁재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기자 김다정 김도희 김두철 김매순 김명선 김명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미향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옥 김상화 김생수 김설아 김성국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월 김순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분 김옥선 김용배 김용선
김웅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점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애 김정희 김정복 김종숙 김종옥 김종익 김종찬 김중희 김주봉
김주혁 김주형 김지영 김춘화 김태균 김학자 김향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옥 김혜란 김화남 나정희 남궁영숙 남궁자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순 민병임 박갑출 박건섭 박금화 박금희 박난영 박노향 박덕남 박동호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소원 박숙영 박순덕 박순배 박애자 박영민 박영호
박옥화 박윤철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란 박종일 박주환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춘자 박필상 박 현 박형덕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명순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배한술 백광일 백춘하 서경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석지찬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병서 손인규 손임순 손학균 송갑수 송근영 송미화 송수정 송영인 송성심 송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은수 신종길 심규향 안순연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중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승홍 연정화 엄은희 엄정원 오성남 오성예 오소연 오재영 오홍균 오홍수
유애중 유영옥 우혜진 원병열 원선미 원예슬 원유미 원화자 원희정 유 근 유나예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균 유재란
유점순 유정순 유정희 유필희 유금숙 윤기춘 윤명숙 윤서경 윤성자 윤애자 윤영미 윤정녀 윤정희 윤정철 윤학병 윤홍목
이기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명숙 이명순 이무식 이문희 이미숙 이미영 이병림 이병일 이병철 이봉원 이선일
이성도 이석숙 이소영 이숙희 이수자 이숙희 이연숙 이연화 이연희 이영규 이영숙 이영유 이영주 이영지 이옥숙 이원래 이윤숙
이원일 이윤규 이윤주 이은경 이인숙 이재곤 이재선 이정미 이정옥 이종남 이종현 이주영 이지영 이지은 이진주 이창주 이천희
이춘선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한수 이현석 이현아 이혜란 이혜옥 이효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순희 임쌍용 임윤희
임인숙 임재철 임청용 장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준용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전수진 전윤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금옥 정명옥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수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순 정주향
정지혜 정진호 정치용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남진 조돈산 조상규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영순 조영자 조원순 조은비 조정섭
조정일 조종현 조진경 조현옥 주명호 주신자 지영필 지운용 지윤성 지정훈 차유진 차재옥 차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돈식
최동규 최명기 최문수 최미정 최미혜 최민기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원화 최영순
최영희 최예삼 최옥순 최윤영 최은숙 최은순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종대 최종인 탁광희 피종호 하원자 하윤옥 하은희 한명수
한성우 한순덕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현 함서현 허순영 허 엽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기수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홍의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황태홍 황변구

후원교회

감 리 성 교 회 강 변 제 일 교 회 강 원 침례 교 회 거 성 침례 교 회 그말씀양문교회 금 산 교 회
나 육성결교회 동 신 장로 교 회 발은빛장로교회 사 랑 의 교 회 새 춘 천 교 회
석사감리교회 소 양 성 결 교 회 소 양 제 일 교 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조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 복 교 회 신 성 감 리 교 회 아 미 교 회
엠 마 오 교 회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예 사 랑 교 회 예 수 춘 교 회 옥산포침례교회
우 두 감 리 교 회 주 의 숲 교 회 주 찬 양 교 회 주 향 장로 교회 축 복 교 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교회 춘 천 명 성 교 회 춘 천 동 부 교 회 춘 천 예 담 교 회
춘천은평교회 춘천은혜교회 춘 천 일 신 교 회 춘 천 중 앙 성 결 교 회 춘 천 제 일 교 회
춘천침례교회 춘천평화교회 하 늘 평 안 교 회 한 빛 교 회 한 울 섬 김 교 회
화 목 교 회 후 평 제 일 교 회 춘 천 광 장 교 회 산 슬 교 회 산 천 무 지 개 교 회
하 늘 기쁨 교 회 성 광 교 회 섬 이 있 는 교 회 암 스트롱병원교회 춘천효자감리교회
초 대 교 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터 설곡산기도원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웰드비전 춘천CBMC 춘천와이신협
칠락의 기쁨 행복재가요양기관 ▶명단(단체)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T.(033)256-1260 H.010-9698-2993 / 후원계좌번호: 신한 131-005-937566(춘천시시화운동본부)

창간 1998년 9월 15일 발행인 이사장 이수형 편집장 최상도, 이관형 편집위원 이연희, 이영규, 김춘배, 정숙현, 김진솔

편집·발행 춘천시시화운동본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 문의 (033) 256-1260 팩스 (033) 257-1260

메일 holycc1972@daum.net

*본 매거진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 매거진에 실린 글, 사진, 그림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드림에드에 있으며 허락없이 본 매거진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나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nd

L-RUG

LORD, RAISE UP GENERATIONS!

주여! 세대를 일으켜 주소서!

2023.4.14 – 5.5(매주 금요일)

PM 18:30 – 예뎔빌딩

LINE UP

시와그림 x **아델포이** x 나요한 목사 x 이정기 목사(청년외침)
x 한건수 대표 x **윤대영 목사** x **라영환 교수**

주최 드림래더 문의 인스타그램

성시신문 교계소식

2023년 1월부터
춘천 교계소식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QR코드를 찍어 보세요.
2. 성시화운동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holy1972.com) > 신문방송)



성시신문교계소식

춘천기독교 120년사

문의 : 춘천성시화운동본부(010-9698-2993)



춘천기독교 120년사 편찬위원회